# 애물단지 해남 땅끝호텔 매각 또 무산

## 건설사 35억 계약체결 후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 안내… 매각 무산 두번째

해남 땅끝호텔 매각이 또 다시 무산됐다. 매매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물거품됐다. 벌써 두번째다. 수 차례 매각 무산이 되면서 해남 땅끝호텔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17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7월 충북 중견건설업체 A사와 35억7300여만원에 땅끝호텔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해 말 해지했다. A사가 계약금만 납부한 채 중도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무산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이로 인해 전남개발공사의 매각 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사는 땅끝호텔 매각에 급급, 매수자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진 중이다. 매수자의 재정·운영 계획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매각 조건에서 자격 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은 없다"며 "가장 먼저 인수의사를 밝힌 곳에 기회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실제 첫번째 계약이 무산된 매수인 측은 개발공사가 매각공고 당시 타인 소유 토지, 호텔 내 불법건축물 존재 등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매각 실패 이유를 '잘못 꾄 첫 단추'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리적 위치가 땅끝도 아니고 해수욕장이 있는 송호리와도 떨어져 있어 지리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땅끝은 지리적 상징성에 의해 많이 찾지만 주변 편의시설이 미흡해 머물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해남 A씨는 "왜 전남개발공사가 사업성도 없는 땅끝호텔을 매입했는지 모르겠다. 희한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땅끝도 아니고 송호리도 아니어서 지역민들도 가지 않는다"고 땅끝호텔 매입 과정에서의 의문을 제기했다.

해남군 관계자도 "땅끝호텔은 군 소재지에서 50분 걸린다. 주요 행사가 아니면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지리적 문제를 꼬집었다.

전남개발공사는 2009년 3월 경매 매물로 나온 땅끝호텔을 35억원에 사들였다. 매입비보다 많은 47억원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투입했으나 매년 적자에 허덕였다.

매입 당시 박준영 전남지사가 관광사업의 기반인 숙박시설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해남 땅끝호텔과 염암 한옥호텔을 공사를 통해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언론포럼 주최 합동 인터뷰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언론포럼, 이낙연 국무총리 초청 인터뷰

# "올해 초까지 최저임금 정책 정착 청년실업 문제 향후 4년이 고비"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 157만원 정도는 국민이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 넘었으면 좋겠다"면서 "올해 초까지 최저임금 정책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조만간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차료 상한선을 낮추는 등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들을 돕는 시책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영란법 개정과 관련해 "경조사비를 묶고 선물을 푸는 것은 제 아이디어다"고 소개하고 "일상에서 경조사비가 훨씬 부담이며 투명 사회를 만드는데 장애다. 농어민들을 도우면서도 청렴사회로 가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의 의지다. 추가 개정 등의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도울 것
### 자치분권형 개헌 국회 주도 발의해야
### 문화전당장 선정 올림픽 끝난뒤 속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가운데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 인구가 늘다가 감소하게 되는 앞으로 4년 정도가 고비라고 말했다.

그는 "경북의 경우 3000만원 농촌 일자리 보장제, 공무원 주4일 근무제 등의 일부 일자리 정책이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면서 "여러 방안을 확대 적용할 지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치분권형 개헌에 대해 이 총리는 "현재 국회가 주도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개헌을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6월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하려면 3월 20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국회가 큰 결단을 내려 국회 주도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에 부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전라도 정도 천년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묻는 질문에는 "제가 전남지사로 재직시절, 추진하고 합의사항을 만든 사업이다"면서 "관계부처와 상의할 문제지만, 사업별 심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사업은 선별적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어떤 사업은 의미를 부여해 선별적으로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전당만 짓고 콘텐츠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콘텐츠 보완과 전당장 선정 과정이 진척을 보이지 못해 안타깝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총리는 "전당을 책임지실 분 빨리 정해져야 하는데, 지역 여론이 갈려 진척이 잘 안되고 있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평창 올림픽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림픽이 끝난 뒤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쌀값 안정화 문제에 대해 이 총리는 "쌀값은 15만원선인 2015년 수준까지 회복해야 한다"며 "직불금 체제 합리적 연구 등 농수산인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한다는 대원칙으로 임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시 운전원 처우개선에 민원도 줄었다

## 건강관리사업 등 추진… 민원 10% ↓

택시와 시내버스 운전원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우니 관련 교통 민원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17일 "지난해 교통 관련 민원이 전년과 비교해 10%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접수된 교통불편 민원은 버스 602건, 택시 1104건 등 1706건으로 전년도 버스 822건, 택시 1209건 등 총 2031건에 비해 16%(325건) 감소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열악한 차고지 환경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했다.

환경개선은 광주지역 8개 공영차고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까지 12억원을 투입해 ▲노면포장 6곳 ▲자동세차시설 설치 2곳 ▲휴게실 설치 4곳 ▲각종 편의시설 개선 5곳 등을 진행했다.

또 2014년 11월 광주근로자건강센터와 시내버스 운전원 무료건강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부터 운전원 건강관리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7월 운전원 건강관리TF를 구성해 업체·유형별 근무여건을 분석하고 운전원 건강관리 강화, 근무여건 및 운전원 고령화 대응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어 2016년부터 법인택시에 대한 평가에 운전원 제복 지급, 무사고 포상 등 복지지원 실적을 평가항목에 반영해 근로환경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이끌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시 국립지속가능발전센터 유치 나서

## 다양한 환경 신규사업 주력

광주시가 국립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유치에 나서는 등 올해 다양한 환경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17일 "올해 '지속가능발전 100년 도시 광주' 비전 달성과 환경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 연구기관 유치, 생물다양성 보전, 오염물질 배출업소 사업장 관리 강화 등 환경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법 개정법률안에 신설된 국립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광주유치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공감대 형성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또 환경시장 대응과 지역 환경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한국 환경산업기술원 호남지역본부' 광주 설립도 추진된다. 올해부터 5년에 걸쳐 국비 300억원을 투입, 환경산업 기술개발, 컨설팅 금융, 해외 진출 등 지역 환경산업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보전·복원사업도 다양하다. 우선 도심 하천 습지로서 자연 경관이 우수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 보호지' 지정을 위해 환경부에서 습지정밀조사가 완료되면 내년에는 보호지역 지정 후 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해 습지오염 방지와 교육·홍보, 생태계 관찰을 위한 습지보전 이용시설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이형석 민주 시당위원장 "광주시장 출마 않겠다"

6·13 지방선거 광주시장 출마예정자로 거론돼온 이형석(56)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17일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광주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더 이상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를 알린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시당위원장으로서 기초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선거 등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선거업무와 당무 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면서 "공정한 선거 진행을 위해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형석 위원장은 순천고와 조선대를 졸업한 뒤 광주시경제부시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광주시의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